

흥하는 농촌, 늘어나는 별천지

지금 공화국의 농촌마을들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집들이경사가 련이어 펼쳐져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월에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여러 농장마을들에 새집들이경사가 난데 이어 2월과 3월, 4월과 5월, 6월에 들어서서도 온 나라 방방곡곡에 새시대 사회주의농촌진흥의 요구에 맞는 문화농촌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너무도 꿈만 같아 새집에 선풍 들어설수가 없습니다. 우리 농장의 모든 농장원들이 이렇게 한날한시에 멋쟁이 새집을 받았습니디. 저렇게 남너소모두가 흥겨운 춤판을 떠날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많고 많아도 우리 나라에서처럼 국가가 농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황금이삭 설레이는 풍년벌로 만들어 나라의 은덕에 기여이 보답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조차 없

는 우리 마을에 이렇듯 희한한 새집들이경사가 났으니 정말이지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무슨 말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장원들모두가 올해에 어떻게 하나 풍년로적가리를 높이높이 쌓아올릴 결의를 부풀고 있습니다.》

... 새집을 받은 농업근로자들이 저마다 러치는 이 격정의 목소리는 이 땅에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경여하는 김정원수님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분출이고 그 품에서 사는 북한은 농업근로자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의 토로이다.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들 누구나의 소중한 꿈이고 소원이요. 그 꿈과 소원이 이 땅에서는 도시에서뿐 아니라 농촌지역마다에서도 현실로 꽃피고 있다.

사시절 전전에 걸쳐 이 땅에 애국의 랑심을 묻어가는 농업근로자들.

그들을 새 문명의 주인으로, 새시대 농촌진흥의 참된 주인들로 내세우시려는 경여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심혈과 로고에 떠받들려 이 땅에 장엄한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강고한 투쟁행정에서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한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리상향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며 가장 엄숙한 도전과 난관이 증폭된 시기에 농촌진흥의 장엄한 새시대를 열어놓으셨다.

돌이켜보면 사회주의건설에서 농촌문제해결의 중요성과 의의를 통찰하시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시기부터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무르익혀오신 경여하는 원수님이시디.

그러시면서 농촌건설에서 산간지대는 산간지대만이 나게, 벌방지대나 해안지대는

특색을 잘 살리며 발전시키 나갈데 대한 문제, 지방의 건설력량과 설계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먼저 표준군들을 잘 꾸러 전형을 창조하여 벌방지대, 산간지대, 해안지대들의 본보기를 만들고 일반화할데 대한 문제 등은 경여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의 대변영기를 안아오시던 령도의 나날에 제시하신 농촌건설발략들이디.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가기》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목표와 당면한 중심과업, 조선로동당과 국가가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장기적인 농촌발전전략을 밝히시면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시게 하는 농촌건설에서의 최우선과업으로 제기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농촌건설에서 산간지대는 산간지대만이 나게, 벌방지대나 해안지대는

그에 맞게 하며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 설계력량과 건설력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장비를 갖추데 대한 문제, 살림집건설을 선차적으로 내밀기 위한 과업, 농촌건설을 당적, 국가적으로 지휘하는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울데 대한 문제, 주요자재들과 마감재들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며 지방에도 건설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시해주셨다.

이뿐이 아니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농촌혁명강령이 지체없이 실행되도록 농촌살림집건설을 위한 시, 군건설려단조직과 건설장비, 기공구, 자재보장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도록 하시었다.

이 나날 농촌살림집건설과 관련한 2 000여건에 달하는 설계형성안을 지도하여주시었으며 농촌건설용세멘트를 시, 군들에 전진공급하기 위한 수송수단, 수송방법과 보

판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농촌문제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실현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전략적문제 중시하고 그 옳바른 해결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줄기차게 열어가기 위한 원대한 구상을 천명하시었다.

이처럼 경여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농촌고유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성과 미학성이 보장되게 다양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설계된 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솟아나오르며 농업근로자들은 문화농촌에서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며 보람찬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경여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이다.

지금 공화국의 농촌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발판공사를 비롯한 올해 관개건설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되어 가을과해를 많이 받던 고장에서도 물고생을 모르고 안전하게 농사를 짓게 되었다.

하기에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인민이 바라는 일이라면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이 땅위에 현실로 펼쳐주시는 경여하는 원수님의 품이아말로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보살펴주고 바람도 비도 다 막아주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

이라고 하면서 고마움과 격정의 눈물을 쏟고있는것이디. 끝없이 베풀어지는 경여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을 날에날마다 받아안으며 이 땅의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지금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보답하려는 열의로 심장을 끓이며 산악같이 일떠섰다.

풍년로적가리를 높이높이 쌓아 나라의 은덕에 기여이 보답하자! 이것이 이 나라 농촌지역들마다에서 울려나오는 농업근로자들의 불타는 맹세이다. 그 맹세를 지켜 전야마다에 티없이 깨끗한 랑심을 묻고 성실한 맘을 바쳐가고 있다.

령도자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려는 농업근로자들의 깨끗한 랑심과 헌신의 땀방울에 실려 이 땅에선 사회주의농촌문명이 날로 꽃피고 있다.

한없이 자애로우신 인민의 아버지 경여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농촌진흥의 새시대에 펼쳐진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울려나오는 농업근로자들의 웃음소리, 사회주의탄생소리는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리일현



방문기

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국내최우수제품들중에는 여러가지 농산물들도 있다.

예로부터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선조들은 전통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농산물들을 많이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중에는 신선로, 탕면그릇, 밥그릇, 죽그릇, 술가락, 저가락, 주전자와 같은 농기구류들도 있다.

우리 겨레가 즐겨 사용했던 농산물들은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고 공예품으로도 쓰였다고 한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도 우리 겨레는 밥, 죽, 나물, 찬 등 모든 음식들을 농기구류를 사용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물을 채운 독안에 농기구류를 넣어 물에 정제하였고 절임음식을 만들때 단지에 담고 가운뎃을 막아넣어 음식물의 부패변질을 막았다고 한다.

얼마전 우리는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농기구류들을 훌륭히 만들어내고있는 보통강

주방설비공장을 찾았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김복성지배인은 공장 연혁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은 창립당시 자그마한 생산협동조합으로 출발을 했다고 한다.

그후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부속세간들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현대적인 공장으로 발전하였다.

공장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여러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에 적극 의거하고 대동적기술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과학기술보급을 활발히 운영하여 누구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가 마련되어 마음껏 배우는 과정에 많은 종업원들이 기술자, 기능공예로써 들어가고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공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았다.

가공작업반, 프레스작업반, 공무작업반 등 생산현장들에서는 노동자들이 농기구류들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것은 세공작업을 진행하는 기능공들의 섬세한 손놀림이었다. 이들에 의해 잠간사이에 진달래꽃이여 포도송이를 비롯한 갖가지 세련된 무늬들이 농기구류들에서 새겨지고 있었다.

부드러운 색깔과 은근한 광택, 여러가지 섬세한 장식부각으로 하여 하나의 정교한 세공품을 현상계 하는 농기구류들은 볼수록 훌륭했다.

이들에 의해 손색없이 완성된 농기구류들을 보며 감탄하는 우리에게 지배인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농기구류들이 2월2일제품등록증상장을 수여받았다고,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를 비롯한 전시회들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기구류들은 평양제1백화점과 평양역전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상업봉사망들에서 판매되고있는데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하면서도 우아하고 품위 있고 쓰기도 편리한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우리는 공장에서 40여년째 일해온다는 선반공 조경희녀성도 만나보았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마다에 존엄은 조선민족의 넋이 깃들여있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래서 매일 기대앞에 설 때마다 조국과 인민앞에 부끄럽지 않게, 저의 랑심이 깃든 훌륭한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일하고있습니다.》

비록 맑은 소박하여도 민족의 재부를 지키고 더욱 빛내이기 위해 아갈라갈 애쓰는 이꽃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자기가 만드는 농기구류들이 공장을 대표하는 인기있는 명제품으로, 사람들 누구나 즐겨 찾는 명품으로 되게 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으며 우리는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진혁

기류들은 볼수록 훌륭했다.

이들에 의해 손색없이 완성된 농기구류들을 보며 감탄하는 우리에게 지배인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농기구류들이 2월2일제품등록증상장을 수여받았다고,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를 비롯한 전시회들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기구류들은 평양제1백화점과 평양역전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상업봉사망들에서 판매되고있는데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하면서도 우아하고 품위 있고 쓰기도 편리한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속에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우리는 공장에서 40여년째 일해온다는 선반공 조경희녀성도 만나보았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마다에 존엄은 조선민족의 넋이 깃들여있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래서 매일 기대앞에 설 때마다 조국과 인민앞에 부끄럽지 않게, 저의 랑심이 깃든 훌륭한 제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일하고있습니다.》

비록 맑은 소박하여도 민족의 재부를 지키고 더욱 빛내이기 위해 아갈라갈 애쓰는 이꽃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자기가 만드는 농기구류들이 공장을 대표하는 인기있는 명제품으로, 사람들 누구나 즐겨 찾는 명품으로 되게 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으며 우리는 공장을 나섰다.

본사기자 김진혁

별써 몇번이나 물어봤는지 모른다.

《화성거리 화성1동 19인민반으로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십니까?》

그러면서도 제 집을 찾아간다는 말만은 차마 입밖으로 내지 않아 우물우물하며 새집을 받은 친구를 찾아가는 흥내를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 집을 몰라 거리를 헤매는 이런 한심한 새대주가 세상에 나 말고 또 있을까?)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지만 나로서는 어쩔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석달 가까이 지방에 출장을 나간 사이에 화성거리 새집을 받고 안해 혼자서 이사를 하다가 보니 안다는것은 집주소 뿐이었고 TV로 그처럼 눈에 익힌 새 거리가진만 처음은 더 낱아보는 나는 그대로 관청에 온 촌담신새가 아닐수 없었다.

안해가 마중나오겠다는것을 혼자 찾아간다고 우겨댄 것이 후회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웅장화려한 새 거리, 이젠 나의 집이 자리잡은 《나의 거리》를 발목이 시도록 거닐어보는것도 참 즐거운 일이라 힘든줄 몰랐고 얼굴에선 웃음이 가실줄 몰랐다.

《간난신고》끝에 화성1동 19인민반이라는 현판명판앞에 있을 때의 나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없었다.

선뜻 아파트 현관안으로 들어서기 지어하며 웃음을 다시 머미는데 현관문으로 나오던 한 중년의 녀인이 누구를 찾아오는가고 묻는것이였다.

나는 얼굴의 맘을 훑치며 처음으로 버젓이 대답했다. 《내 집 3층 1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스만 가지고 새집을 찾아오느라 탐개나 했다고 우스개소리를 덧붙였다. 《할 행복한 집주인이구만

요.》

동네아주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몇번은 웃음을 남기고 현관으로 들어서니 나의 생각은 바닥없이 깊어졌다.

제 집을 찾지 못해 한나절이나 헤매고 다닌 집주인이 참 웃지 않을수 없는 일이지만 왜서인지 가슴은 뜨거워

올랐다.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 이 사는 집이지만 그래도 전실까지 달린 3칸짜리 집이여서 큰 불편을 모르던 나였다.

그래도 신선살림이라 들어서 오뎅하게 살아보고싶은 생각, 부모들의 슬하를 떠나 당당한 세대주의 《권리》를 행사해보고싶은 욕망이아 없애 없애라만 부모님들앞에서도 내색할수 못한 마음속욕망이 현실로 되어 선정의 새 거리에 나의 집이 생길줄이야.

간단없이 사색의 가치를 떠나가나니 어느한 출판물에 실렸던 기사의 한대목이 떠올라 때부를 파고들었다.

저기 남쪽땅에서 한평생을 다 바쳐서도 이루지 못한 《내 집마련의 꿈》을 천추의 한으로 남기게 지주로운 세상을 떠난 기사의 주인공의 비참한 운명이 눈앞에 밝혀졌다.

무슨 일인들 못했으며 무슨 고생인들 겪지 못했으면 끝내 이루지 못한 꿈, 이루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지주와 절망으로 화하여 끝내 내 피로 적셔야 했던 《내 집마련의 꿈》.

희한한 고대광설도 아닌 단 한간이라도 족할 내 집, 그 쪽방마저도 한생을 바쳐서도 얻을수 없는것이 바로 기사의 주인공이 사는 남쪽

땅의 현실이고 《사치》와 《변역》을 자랑하는 자본주의사회 어디서나 비밀비제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틀어가느라니 나는 과연 내 집마련을 위해 얼마만한 맘을 바쳤던가 하는 생각으로 죄스러워지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나라를 위해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나에게도 덩실한 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었다. 얼마나 고마운 우리 나라인가.

평양시에 당의 은정어린 1만세대의 송화거리가 일떠서

고 이해에는 화성거리에 또 화려한 새 거리가 일떠서서 부러워졌지만 내가 그 거리의 주인이 될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

너무도 생각밖엔 받은 행복, 너무도 꿈만 같이 차려진 인생의 크나큰 기쁨.

그래서 나는 자기 집이 어디쯤에 자리잡고있는지도 모르는 행복한 《바로》가 되 있었다.

이런 가슴불쾌해지는 풍경이 고마운 우리 사회 말고 이 행성 어디에 찾아 또 찾아볼수 있겠는가.

참으로 나는 지금껏 받아안는 사랑과 혜택이 얼마나 큰지를 다 모르고 살아온 행

복한 사람이였다. 아니 당의 크나큰 은정을 매일 매 시각 받아안으며 사는 우리 인민 모두가 세상에 배운것 자랑해야 할 행복의 주인공들이라 불려야 할것이다.

후두위로르는 마음으로 집문앞에 이른 나는 조인종을 눌렀다.

귀에 익은 안해의 목소리, 행복에 겨운 그 목소리와 함께 집문이 열렸다.

《혼자서 집을 찾아오느라 (고생) 많았지요?》

안해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혼났소. 하지만 이런 (고생)이라면 백번인들 마다하겠소. 정말 행복의 우리 집이고 행복의 우리 세상입니다.》

밝고 아늑한 우리 집안으로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나의 마음,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들려왔다.

...

아침 해가 찬란한 우리 조국은 인민들이 주인된 행복한 나라

...

손지성

